영규대사·800의승 '재조명'

갑사 408년만에 추모재·학술회…영규관 추진도

◇영규대사와 시명, 서산대사의 진영이 봉안된 갑사 표충원 전경과 갑사 보장각내에 모셔진 영규대사 영정(아래).

조헌과 700 의사만 있고 영규(靈圭)대사와 800 의승(義僧)은 어디로 갔는가.

임진왜란 때 금산전투에서 승병 800명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친 승장 영규대사가 열반 408년만에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됐다.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가 5일 기허당 영규대사(?~1592) 열반 이후 처음으로 대제(大祭)를 지내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는등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재조명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

영규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8월초 갑사에서 스님들을 규합해 왜군의 손아귀에서 청주성을 탈환했으며, 8월18일 금산전투에서 의병장 조헌과 함께 전사했다.

그러나 스님을 천대했던 조선왕조의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해 대사와 800명의 의승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스님들의 공적은 거의 묻혀져 왔다. 금산의 7백의총에서도 조헌과 700 의사만 있고 영규대사와 800 의승의 흔적은 찾아볼 길이 없다.

갑사는 이같은 역사적 무관심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영규대사와 의승들의 공적을 알리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갑사의 영규대사 재조명 작업은 크게 영규대제와 학술회의, 영규관 건립 등 3가지.

5일 갑사 대웅전에서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김말환) 주관으로 봉행되는 영규대제는 대사 열반 후 처음 갖는 대대적인 추모행사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갑사는 이번 행사를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개최하는등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 30여명 등 정·군·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임란시 호국불교 구국승장과 영규대사'를 주제로 학술회의도 열린다. 충남대 최금묵교수가 '임란시 호서의병과 영규대사'를, 김덕수 법사(생활불교)가 '임란시 호국승병과 영규대사', 동국대 김승호박사가 '임란시 승장전설과 영규대사', 공주대 유병환교수가 '임진록에 나타난 승장의 신통 권능'을 각각 발표한다.

갑사는 또 대사의 유물과 관련 자료들을 모은 영규관을 건립, 일반 시민들을 위한 호국불교의 산교육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사의 유적으로는 대전 계룡면 유평리에 지방문화재인 묘가 있으며, 갑사 경내에 표충원이 건립돼 있다. 표충원 앞뜰의 영규대사 사적비는 정인보선생이 집필한 대사의 행장문으로 세워져 있다.

갑사 주지 장곡스님은 "영규대사와 800 의승의 업적과 정신이 4백여년 넘게 묻혀 있었다는게 가슴아팠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의승들에 대한 학술조사를 강화하고, 영규대제도 700의사 추모제처럼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41)857-898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무등산 온천개발 반대

광주 종교인모임 성명

광주지역 종교인들이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천년 민주당 지구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증심사 주지 영조, 문빈정사 주지 석장, 광륵사 주지 능인법사 등 광주지역 불교, 개신교, 천주교 대표자로 구성된 '광주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은 10월19일 민주당 광주 동구지구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등산 온천 개발에 관한 광주지역 종교인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 "무등산 개발을 억제해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화엄종 소의경전 '화엄종성전' 봉정

화엄종(종정대행 정회수)은 10월 21일 인천 약사사에서 화엄종의 소의경전인 〈화엄경〉 등 각 경전의 풀이와 종조 원효성사, 중흥조 의상조사, 창종주 능해대종사 등의 행장을 엮은 〈화엄종 성전(聖典)〉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화엄종 성전〉은 33년전인 지난 67년 화엄종 초대종정 능해대종사가 저술하여 출판한 것으로 한글경전이 거의 없던 당시 한글화경전으로 주목을 받았던 책이다.

이날 봉정식에서 정회수 종정대행은 법어를 통해 "오랜 세월 복간이 되지 못하여 희귀본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종단의 성전을 재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이를 계기로 창종주 능해대종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엄종의 발전을 위해 전 종도가 매진하자"고 말했다〈사진〉.

이경숙 기자

낙산사 문화포교도량으로

의상기념관·다래헌 12월 준공

해수관음성지인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가 오는 12월 의상기념관 및 다래헌 준공으로 문화포교도량으로 거듭난다.

낙산사는 676년 신라문무왕때 의상대사의 사찰 창건을 기념, 지난 99년 14억8,000만원을 들여 총120평 규모의 전통목조건물 2동으로 착공한 의상기념관및 다래헌을 12월말까지 완공해 다래헌은 예술문화 포교공간으로, 기념관은 국민정신교육 도량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산사는 의상대사의 영정및 유물등을 소장한 일본 고산사에서 자료 촬영을 마친데 이어 전시관을 꾸밀 자료수집 작업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다래헌은 전통다원및 중광 지혜스님 등의 선화작품및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낙산사 주지 지홍스님은 "관음성지인 낙산사가 의상기념관 및 다래헌의 건립으로 불교신도와 관광객의 수련공간및 예술문화 산실로 거듭나게 됐다"며 "12월 준공때까지 다채로운 포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해 보리암과 함께 전국 제일의 해수관음 기도도량으로 꼽히는 낙산사는 이번 불사로 더욱 많은 신도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마창불교련 제1회 자비탁발

500여명 참여…모금액 불우이웃 돕기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지태·정법사주지)는 10월28일 소외계층과의 나눔을 위한 '제1회 자비의 탁발' 행사를 가졌다.

지역 원로스님인 지원·철화스님과 원정 이사장스님, 김인규 마산시장, 김형성 시의장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입재식에 이어 정법사-창동 거리-어시장-부림시장으로 이어진 거리 탁발, 회향식 순으로 진행됐다.

지태스님은 "불가의 청정·무소유정신을 일깨우고 시민들에게 소외계층과 더불어 공존하는 자비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며, "모금액 전액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관음사 불교중흥 10년기도

3년차 정진결사 입제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주지 우학)는 10월27일 불교 중흥, 나라 발전, 자아성찰 발원 10년기도(1998년~2008년) 정진결사 3년차 입제식을 가졌다.

신도들은 매일 108배 및 금강경 독송, 2시간 관음정진과 1년에 한번이상 3천배 기도를 발원하고 1년에 3명이상 포교 및 3명이상 원불 권선, 항상 자비와 친절베풀기 등 포교도 발원하며 용맹정진을 계속한다.

김재경 기자

청소년 백일장·사생대회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10월 22일 '청소년 전통문화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양은지(교대부속초등 3)·임은지(고산중 2) 학생이 백일장 부문, 임지석(인화초등 4)·이슬기(사대부중 2)·차혜란(남녕고 2) 학생이 사생대회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김재경 기자

관통사 천왕문 낙성

제주 관통사(주지 혜연스님)는 10월22일 향운 천용사주지, 송권익 명예신도회장, 박창진 신도회장, 김승권 표선면장등 관내 기관단체장과 신도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왕문 낙성 및 사천왕 점안식을 봉행했다. 천왕문은 재일교포 강충남씨가 1억2천만원을 보시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1507주 개산대재

제 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성덕 스님)는 10월20일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민주당 김중권·한화갑 최고위원,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507주년 기념 개산대재를 가졌다. 이날 개산대재는 동화사를 창건한 극달화상의 영정 이운식〈사진〉에 이어 법요식, 보살계 수계식 등이 이어졌으며, 이날 오후 7시부터는 통일기원 탑돌이 행사가 열렸다.

태고종

사미등 115명 수계식

제24기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 131명중 최종 합격자 115명(남행자 95명 여행자 20명)은 10월 25일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인곡 총무원장스님을 전계사, 남파 중앙종회의장스님을 교수사, 연운 사정원장스님을 갈마사로 사미10계를 수계〈사진〉했다.

천태종

진도 삼성사 법당 낙성식

진도 삼성사(주지 증궁)는 11일 오전 10시 법당 낙성식을 갖는다. 이날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061)544-2495

관음종

대천스님 2주기 추모재

종정을 역임한 대천스님의 열반 2주기 추모다례법회가 11일 오전 11시 논산 관음사에서 봉행된다.

총지종

내년도 예산 47억원

10월25일 종의회를 열고 내년도 통리원 예산 47억원과 사회복지재단 4억7백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통리원의 내년도 예산은 전당건설비 27억, 행정업무비 9억, 교화비 6억, 복지재단 보조 2억9천, 기도원 운영비 2억1천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11대 총지화 통리원장의 임기가 10월13일로 끝남에 따라 이날 12대 통리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선출되지 못해 지성 총무부장이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다.

법륜종

제1회 사미(니)계 수계법회

총무원(원장 덕산)은 5~6일 목포 보현정사 금강계단에서 종정 정각스님을 계사로 제1회 사미(니)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733-4445

선각종

중앙총무원 포교원 개원

25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5층빌딩 2층을 임대, 중앙총무원 포교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종정 정업스님〈사진〉, 총무원장 정암스님, 원로원장 법진스님, 포교원장 벽해스님, 사무총장 진천스님, 사회복지원장 지훈스님, 비구니선원장 명지스님과 조희일 가야불교대학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H·P 016)228-2358
FAX 02)396-2735

http://www.avatarcenter.co.kr
E-mall : bukba@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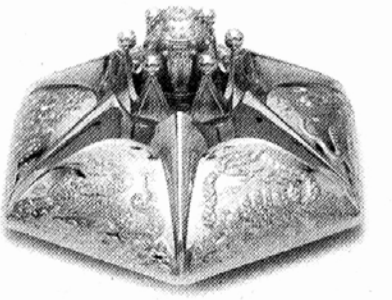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안전운행·사업흥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 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 주지스님을 친견후에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사용처◆ 사찰, 암자, 가정집,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